

##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과 인과구조에 관한 연구

염혜경<sup>1)</sup> 김재신<sup>2)</sup> 임은의<sup>3)</sup>

### 요약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 원자료를 이용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 유형과 영향요인 및 결과산물을 파악하는 것이다. 변화궤적 유형은 하위유지형, 완화형, 중간유지형, 상승형, 상위유지형, 혼합형로 나타났다. 완화형에 대비하여 상위유지형과 상승형의 차별적인 발달궤적요인은 어머니의 연령, 학력, 부부갈등, 양육행동이었고, 하위유지형에 대비하여 상위유지형과 상승형의 차별적인 발달궤적요인은 어머니의 연령, 부부갈등, 아동기질, 양육행동으로 나타나, 특히 어머니의 연령과 부부갈등, 양육행동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발달궤적 유형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기효능감, 우울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인과구조를 바탕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긍정적 정서와 성공적인 노동시장 재진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경력단절여성,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발달산물, 부부갈등

## I. 서론

출산이후 여성은 직장 일을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 양육부담이 커 일과 가정 간 선택의 기로에서 직장을 포기함으로써 경력단절의 전업주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15~54세 기혼여성 900만 5천명 가운데 전업주부(full-time mothers)는 345만 7천명인 38.4%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중 전업주부의 절반 정도는 경력단절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통계청, 2018). 이진경과 옥선화(2009)에 의하면 20~30대 취업여성의 경우 결혼 후 2년 반 이내

1)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2) 경기연구원 연구원

3)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에 절반 정도가 직장생활을 그만두며, 특히 첫 자녀 출산을 2~3개월 앞둔 시기부터 생후 9개월까지 이러한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종단연구를 실시한 McRae (2003)의 분석에서도 첫째 아이가 11살 될 때까지 정규직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들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혼여성들은 어린 자녀의 양육 때문에 대개 직장을 그만두지만, 성공리에 자녀 양육을 수행한 후에는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강민지, 2014). 그러나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지고 높은 우울로 재취업 의지가 꺾여 경력단절상태에 머무를 가망이 있다. 자발성 여부를 떠나 퇴직이후 전업주부의 삶에 진입한 순간부터 정체성 간 갈등과 정체성 내 위기를 경험하면서 양가감정을 느끼고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 양육스트레스를 겪는다(성기정·권수영, 2016).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화 상황에서 자녀 양육 때문에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함이나 부담감을 의미한다(Coplan, Bowker & Cooper, 200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요구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등(Abidin, 1992) 부적절한 상호작용 및 양육행동을 유발하여 자녀의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최정신, 2009), 이후 낮은 자존감과 효능감은 취업에 대한 희망과 시도를 포기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저해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심각하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으로나 가족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서주현·김진경, 2012).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요인, 부모요인, 가족요인, 생태적 요인 등 복합적인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Abidin, 1992). 먼저 아동 발달에 1차적 책임을 지는 어머니는 개인적 속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를 다르게 지각한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어머니 개인 요인은 인구학적 속성에서부터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어머니 연령, 학력수준, 가구소득을 들 수 있다. 어머니 연령과 양육스트레스 관계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도(오재연·유구중, 2007), 반대로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도 있는 등(권미경, 2011) 비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학력도 양육스트레스와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 제시된 바 있지만(문혁준, 2004), 대부분의 연구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어머니 연령과 학력수준은 독립변인의 순수 효과보다는 가구소득과 결합되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Ostberg & Hagekull, 2000). 소득이 높은 가정의 어머니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도와줄 대체인력

을 고용할 수 있으므로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정문자·이미리, 2000). 그러나 가구소득이 많을 때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할 가능성은 낮아져 여성 고학력시대에 가구의 높은 소득이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킨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일가정 양립시대에 점차 자녀 양육은 부부의 공동 과업으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이다. 이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비공식적인 지지체계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리라 예상된다(유호용, 2001).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영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보다 절실하다 그런데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 이전과 다른 부부관계 양상이 전개되는데, 남편의 경우 직장 일에 더욱 전념하고, 부인의 경우 가사일 전부를 떠맡는 이른 바 ‘독박육아’에 처하게 된다. 맞벌이 부부였을 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남편의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참여 감소와 아내에 대한 대우는 이전에는 없었던 부부갈등을 초래하며, 육아 초보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우울과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서에 휩싸이게 한다(유상미, 201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비교 연구에서 비취업모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경력단절여성에게 그대로 적용될 소지가 커 취업 전후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줄어들어 부부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기질은 정서와 활동, 사회 차원에서 아동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성이다(Buss & Plomin, 1984). 아동의 정서와 활동은 부모 양육과 관련이 있는데,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이 어머니의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부정적인 관계 형성을 초래한다(Dumas & Lafreniere, 1993). 과활동아의 부모도 정상아의 부모보다 심한 양육스트레스를 겪는다(Mash & Johnson, 1983). 한편 아동 기질보다는 모자녀간 기질적 조화/부조화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데,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이 조화를 이룰수록 어머니가 아동에게 애정적인 태도를 보여 양육스트레스가 적다고 한다(한세연·박성연, 1996).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투영된 양육 가치관의 경우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부간 육아 가치관의 차이가 적을수록, 어머니가 현대적 양육가치관을 가질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한다(권미경, 2011).

사회적 지지는 아동양육의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요소인데, 전통사회와 달리 현대 가족문화는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지역의 자원보다는 가족의 자원으로 해결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지원은 부모의 원활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주는 책임을 가진다. 사회 및 국가의 자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과 어린이집 충분성은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주와 진미정(2013)은 영유아기 기혼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사회자본과 양육스트레스 관계에 주목하였는데, 취업

모는 어린이집 충분성에 의해, 비취업모의 경우 지역사회 양육 적절성에 의해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 및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역으로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4년간의 종단연구에서 첫째의 양육스트레스는 이후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를 예측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Deater-Deckard, Pinkerton & Scarr, 1996). 다른 종단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으로 예측되었다(Hauser-Cram, Warfield, ME. & Shonkoff, JP. et al., 2001). 이렇듯 외생변수로서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과 정적 관계를 가지며(곽금주·김수경, 2004), 양육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말경·박혜원, 2008).

우울은 여러 가지 불안, 슬픔, 분노 등 부정적 정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상태(Lazarus & Folkman, 1987)로,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거리감을 두어 더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비밀관된 양육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심리적 부적응이나 사회적 부적응의 원인이 된다(박성연·도현심·정승원, 1996).

자아존중감 또한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요인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발달 산물로 작용한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 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가치의식으로서 환경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경험하고 해석하며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고 자녀 양육 과정에서 자녀를 보는 관점이나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양육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권미경, 2011).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성공리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신념체계로(Bandura, 1977),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문제 상황을 쉽게 극복하고 또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은 향상된다.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경험은 후속 출산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그간 국내의 양육스트레스 연구는 양육스트레스 수준과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분석이 활발하게 이뤄져 왔으며, 최근에 들어와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비교, 그리고 한국아동패널 구축이후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종단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 아동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출산 후 2~3년 동안 양육스트레스가 선형적으로 증가한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이정민·이보람, 2013; 이희정, 2013; 최효식·연은모·권수진 외, 201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박새롬·노보람·박혜준 외(2015) 연구에서도 자녀의 성장에 따라 0세에서 4세에 이르는 5년 동안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였으며, 변화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Mulso et al.(2002)는 출산 후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다가 자녀의 연령이 2세에서 3세에, Williford, Calkins & Keane(2007)는 2세에서 5세 사이에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지만 점차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차 곡선의 형태를 보였으며, 취업모의 경우는 시간에 따른 유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박새롬·노보람·박혜준 외, 2015).

이렇듯 양육스트레스 변화 추이는 전체 어머니를 대상으로 혹은 이전 직장경험과 무관한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즉 정태적 측면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비교하여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동태적 측면은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이후 어떤 형태로 변화해 나가는지, 변화 유형별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양육스트레스가 어떤 발달 산물을 초래하는지를 포괄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경력단절 기혼여성이라 하더라도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이 다양하므로 각각의 양상에 따라 영향요인과 발달 산물이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재취업 지원정책, 재취업 결정요인, 임금손실 등 노동시장 재진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거나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경제적으로 분석한 연구 등이(김난주·김영숙·강민정 외, 2016; 손정민, 2017)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 원인과 결과가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양육스트레스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변화 유형별 영향요인과 발달 산물을 조명하여 기혼여성들이 육아와 고용의 이중 과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가는지를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즉 경력단절 이후 여성들이 전적으로 육아를 전담하면서 이들의 노동시장 재진입 의지가 소멸되어 가는가의 면모를 간접적으로 드러내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효과적인 일-가정양립 정책과 경력단절여성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재진입을 제고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추이 및 변화 유형을 탐색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예측 요인 및 산물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경력단절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양육스트레스가 상승하고 있는 유형과 완화하고 있는 유형의 영향요인과 발달 산물의 차이를 규명하여 향후 이들의 양육환경에 대한 조기 적응과 적극적인 대처에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함의를 제공하려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KSC)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아동패널(PKSC)의 1차년도(2008년)~3차년도(2010년) 자료는 아동(영아) 양육 시기의 발달 변화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심리적·정서적 변화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을 요인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로 적절하다.

본 연구대상은 경력단절여성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의 경우에는 혼인, 임신, 출산·육아와 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까지 포함하나,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초점을 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출산·육아로 인해 직장생활 혹은 학업을 그만두어 비취업상태에 머물러 있는 여성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패널의 1차~3차년도 어머니 응답자 가운데 ‘이전에 임신 및 출산 전후로 취업이나 학업을 그만 두고 현재 0세~2세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총 272명이 해당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분류	빈도(명)	백분율(%)	
개인특성	연령	20세~29세	78	29
		30세~39세	191	70
		40세 이상	3	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5	34.9
		전문대학 졸업	82	30.1
		대학교 졸업 이상	95	34.9
가구 특성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	89	32.7
		201만 원~300만 원	116	42.6
		301만 원 이상	67	24.6

## 2. 연구도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을 유형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김기현과 강희경(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한국아동패널에서 발췌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전체 문항이다. 양육스트레스 11번 문항은 3차년도 조사부터 포함됨에 따라 1차와 2차는 10문항을 모두 사용하였고, 3차년도는 11번 문항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응답범주는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 본 연구에서 측정된 척도 신뢰도는 1차년도 .851, 2차년도 .834, 3차년도 .878이다.

어머니의 연령은 자연수로 응답된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20세부터 41세 사이의 어머니들이 응답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31.46세로 분석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기능대학)',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로 코딩되어 있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1, 전문대졸업 2, 대학교졸업 이상 3'으로 재코딩하였다.

가구소득은 자연수 만원단위로 응답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응답 분포는 80만원부터 900만원까지로 나타났으며, 분석 시에는 로그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배우자 양육부담 변수는 한국아동패널에서 홍성례(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의 '부모역할'을 측정하는 문항 중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남편의 양육 참여'로 명명하고, '남편은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남편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등의 4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범주는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양육 참여가 높음을 의미한다(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 본 연구에서 측정된 척도 신뢰도는 .769이다.

부부갈등은 Markman, Stanly, Blimberg의 1994년 연구와 2001년 연구를 번안한 정현숙(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의 연구를 수정한 한국아동패널의 부부갈등 척도를 활용하였다.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남편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등의 총 8문항이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응답범주는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의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 본 연구에서 측정된 척도 신뢰도는 .905로 나타났다.

아동기질은 Buss & Plomin(1984)의 연구와 Mathiesen & Tambs(1999)의 연구(한국아동패널, 2014 재인용)를 번안 및 수정한 한국아동패널의 부모용 아동기질 척도 중 정서성 관련 1,6,8,10번 4개 문항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응답범주는 각 문항에 대하여 5

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냄을 의미한다(한국 아동패널, 2014 재인용). 본 연구에서 측정된 척도 신뢰도는 .745이다.

양육행동은 Bornstein와 동료들(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의 연구에서 한국아동패널 연구팀이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한 사회적 양육행동 6문항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나는 내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나는 내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를 온정적, 반응적으로 양육했음을 의미한다(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 본 연구에서 분석한 척도 신뢰도는 .811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양육적절성 변수와 어린이집 충분성 변수는 서문희와 조애저, 김유경 외(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 연구의 척도를 수정하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자체 제작한 지역사회특성 관련 하위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범주는 각각 5점 Likert 척도 1개의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수정하며 사용한 한국아동패널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등 총 10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 응답범주는 4점 Likert 척도인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3,5,8,9,10번 문항을 역코딩 한 후 10문항을 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는 .854로 분석되었다.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은 Pearlin와 동료들(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한국아동패널의 자기 효능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내가 가진 문제들 중 몇몇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는 살면서 때때로 뭔가에 휘둘리는 느낌을 받는다' 등 총 4문항이다. 응답범주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 본 연구에서 측정된 척도 신뢰도는 .783이다.

어머니의 우울은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정·번안한 Kessler의 우울 척도를 활용하였다(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 '불안하셨습니까?', '무기력하셨습니까?' 등의 총 6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한국아동패널, 2008 재인용). 본 연구에서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는 .902이다.



〈표 2〉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명	변수속성
종속변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	상위유지형=1, 중위유지형=2, 하위유지형=3, 완화형=4, 상승형=5, 혼합형=6
	연령	자연수
개인 특성	학력	고등학교졸업 이하=1 전문대학졸업=2 대학교졸업 이상=3
	가구소득	자연수(회귀분석 시 로그변환), 단위: 만원
	배우자 양육분담	아버지 양육분담관련 4문항 합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범위: 0~20점
독립 변수	부부 특성	부부갈등관련 8문항 합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범위: 0~40점
	양육 특성	아동기질 아동기질관련 4문항 합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범위: 0~20점
환경 특성	양육행동	양육행동관련 6문항 합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범위: 0~30점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	5점척도 1문항: 매우 좋지 않음(1점)~매우 좋음(5점)
결과산물	어린이집 충분성	5점척도 1문항: 매우 불충분함(1점)~매우 충분함(5점)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10문항 합산(3,5,8,9,10번 문항 역코딩)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범위: 0~40점
	부정적 자기효능감	부정적 자기효능감 4문항 합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범위: 0~20점
	우울	우울 6문항 합산 전혀 안 느낌(1점)~항상 느낌(5점), 범위: 30점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을 살펴보고, 그 인과구조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단계의 분석과정을 거쳤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변인들의 정규분포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을 크게 6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셋째,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분석(Multinomial logistic model)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의 범주가 2개 이상일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으로 양육스트레스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적합하다. 넷째, 각 유형에 따라 결과 산물

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활용하였다. MANOVA는 종속변수의 조합에 대한 효과의 동시검정을 중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속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을 때, ANOVA에서 밝힐 수 없는 결합의 차이를 도출할 수 있다.

### III. 연구결과

####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주요변인들이 절대값을 기준으로 왜도 .166~1.65, 첨도 .038~6.22로 나타나 각각 기준치인 .3과 .7 이하의 정규분포조건(Curran, West & Finch, 1996)을 충족하였다(표 3). 3년간의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 평균값을 확인한 결과에는 점차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추이와 유사하다(이희정, 2014; 박새롬·노보람·박혜준 외, 2015; 김세리·조혜림·이강이, 2017). 연구대상의 2008년 시점 연령은 평균 31.46세이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2분위(중위소득 50%)에서 3분위(중위소득의 70%) 사이의 값인 271.63만원이다. 경력단절 기혼여성은 배우자 양육분담을 평균 13.99점인 보통수준 이상으로 참여한다고 인식하였다. 환경측면에서 지역사회 양육 적절성은 3.27점, 어린이집 충분성은 3.46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측정변인	연차	<i>M</i>	<i>SD</i>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양육스트레스	2008(1차)	17.75	4.72	7	32	.17	-.04
	2009(2차)	17.81	4.51	7	32	.09	.06
	2010(3차)	18.46	4.74	7	33	.25	.47
가구소득	2008(1차)	271.63	102.32	80	900	1.65	6.22
연령	2008(1차)	31.46	3.39	20	41	.068	.23
부부갈등	2008(1차)	15.74	5.94	8	40	.94	1.32
아동기질	2008(1차)	10.89	2.66	4	20	.28	.13
양육행동	2008(1차)	24.53	2.83	13	30	-.41	.58
배우자 양육분담	2008(1차)	13.99	3.29	4	20	-.30	-.06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	2008(1차)	3.27	.87	1	5	-.21	-.46
어린이집 충분성	2008(1차)	3.46	.99	1	5	-.38	-.37

또한, 측정변수들에 대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점검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계수(r)의 값이 -.49에서 .60까지의 상관을 나타내 모두 .6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표 4). 이러한 결과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측정 모형에서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양육스트레스 변화계적 유형	1									
연령	-.15*	1								
학력	-.03	.09	1							
가구소득	-.06	.21**	.25**	1						
배우자 양육분담	-.06	.01	-.03	-.06	1					
부부갈등	-.05	-.05	-.03	-.02	-.49**	1				
아동기질	-.02	-.10	.02	-.07	-.04	.13*	1			
양육행동	.11	.03	.09	.17**	.23**	-.28**	-.09	1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	.06	.08	.17**	.25**	-.11	-.05	-.16**	.01	1	
어린이집 충분성	.02	.08	.11	.10	-.07	-.13*	-.17**	.06	.60**	1

\* $p < .05$ , \*\* $p < .01$ , \*\*\* $p < .001$

## 2. 양육스트레스 변화계적 유형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에 걸친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계적 적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유형화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3차년도 양육스트레스 측정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상위 25%, 중간 50%, 하위 25%로 나누어 변화 경향을 살펴보았다. 총 3년에 걸친 응답 중, 한 해라도 무응답일 경우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유형화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

유형	코딩과정 설명	빈도(명)	백분율(%)
상위유지형	1~3차년도 동안 지속적으로 상위 25%를 유지한 경우	31	11.4
중위유지형	1~3차년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중간 50%를 유지한 경우	37	13.6
하위유지형	1~3차년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위 25%를 유지한 경우	35	12.9
완화형	1차년도보다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계속 떨어졌거나 떨어진 상태를 유지한 경우	53	19.5
상승형	1차년도 보다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지속적으로 올랐거나 오른 상태를 유지한 경우	65	23.9
혼합형	1~3차년도에 걸쳐 조사기간 동안에 상·중·하위를 넘나든 경우, 즉 완화형과 상승형이 중첩된 유형을 경험한 경우	51	18.8

〈표 6〉을 통해 경력단절 기혼여성 양육스트레스의 3년 간 변화 양상을 제시하였다. 3년간의 양육스트레스 전체 평균은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평균의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상승형과 완화형이다. 상승형은 해를 거듭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으며, 반대로 완화형은 3차년도로 갈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6〉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차이

유형	1차년도 평균점수(SD)	2차년도 평균점수(SD)	3차년도 평균점수(SD)
상위유지형	24.65 (2.63)	23.97 (2.66)	25.16 (3.78)
중위유지형	17.78 (1.29)	17.62 (1.40)	18.87 (1.18)
하위유지형	12.00 (2.34)	11.63 (2.44)	12.11 (2.54)
완화형	19.83 (2.96)	18.04 (3.92)	15.38 (2.98)
상승형	15.28 (3.39)	17.95 (3.79)	20.65 (3.31)
혼합형	18.45 (4.70)	18.00 (3.97)	18.86 (3.45)
전체	17.75 (4.72)	17.81 (4.51)	18.46 (4.74)

양육스트레스 발달궤적 유형별 주요 변수의 특징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발달계적 유형별 변수 특성(1차 2008)

구분		상위유지형	중위유지형	하위유지형	완화형	상승형	혼합형
연령	빈도	31	37	35	53	65	51
	고졸 이하	45.2	16.2	42.9	22.6	41.5	41.2
학력	전문대졸	% 29.0	35.1	34.3	34.0	27.7	23.5
	대졸 이상	25.8	48.6	22.9	43.4	30.8	35.3
가구소득		270.67	292.86	256.36	263.02	265.44	285.44
배우자 양육분담		13.45	13.89	15.74	13.96	14.08	13.10
부부갈등		19.45	15.22	12.09	15.94	15.66	16.25
아동기질	평균	11.52	10.89	10.34	11.09	10.37	11.33
양육행동		23.26	24.32	25.77	23.79	25.17	24.53
지역사회양육적절성		3.16	3.30	3.20	3.15	3.38	3.33
어린이집충분성		3.19	3.75	3.34	3.42	3.57	3.39

### 3. 양육스트레스 변화계적 유형의 예측요인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하위유지형과 상승형, 상위유지형과 완화형을 예측요인별로 비교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8〉 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8〉 양육스트레스 변화계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기준집단: 완화형)

1차년도(2008) 예측요인	완화형 대 상위유지형			완화형 대 상승형		
	<i>B</i>	<i>S.E.</i>	<i>exp(B)</i>	<i>B</i>	<i>S.E.</i>	<i>exp(B)</i>
연령	.01	.08	1.01	-.19***	.07	.82
가구소득	1.19	1.47	3.30	.29	1.27	1.34
학력(기준: 대학교졸업 이상)						
고등학교졸업 이하	1.50**	.63	4.47	1.08**	.55	2.95
전문대학교졸업	.422	.63	1.53	.07	.52	1.07
배우자 양육분담	-.01	.09	.99	-.01	.08	.99
부부갈등	.09**	.05	1.10	.02	.04	1.03
아동기질	.13	.12	1.14	-.14	.09	.87
양육행동	-.02	.09	.98	.27***	.09	1.31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	.21	.36	1.24	.47	.31	1.59
어린이집 충분성	-.10	.31	.90	-.07	.27	.93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8〉에서는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을 완화형 집단 기준으로 하여 상위유지형과 상승형을 비교하였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완화형과 비교하여 상위유지형에 포함될 확률은 어머니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일 때 4.47배, 부부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1.10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부 간의 갈등이 심할수록 경력단절 기혼여성이 양육스트레스 상위유지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가정에서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함께 느낌으로써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고학력 여성에 비해 저학력 여성은 경력단절 후 재취업의 장벽을 더 높게 느끼기 때문에 학력이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하게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경력단절 기혼여성에게는 배우자가 일상에서 가장 큰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영아기 자녀 양육에 대한 견해 차이와 같은 갈등을 겪게 되면 양육스트레스가 상위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완화형과 비교하여 상승형에 포함될 확률은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82배 낮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고등학교졸업 이하일 때 2.95배, 어머니가 온정적·반응적 양육행동을 보일 때 1.31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력단절 기혼여성들은 자녀들에게 애정과 우호의 감정을 갖고 돌보지만, 이러한 양육 과정에서 긴장과 스트레스라는 양가감정 느낌으로써 양육스트레스가 상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양육행동을 나타낼수록 경력단절 기혼여성이 양육스트레스가 상승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에서는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을 하위유지형 집단 기준으로 상위유지형과 상승형 집단을 비교하였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하위유지형 집단에 비해 상위유지형 집단에 포함될 확률은 부부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1.28배, 부정적 아동기 질이 나타나는 경우 1.27배, 어머니가 온정적·반응적 양육행동을 보일 때 .7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정 내에서 배우자와의 심한 갈등, 자녀의 부정적인 기질 표현, 어머니가 자녀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양육행동이 경력단절 기혼여성들의 양육스트레스를 상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요인들의 결과 값이 상승함에 따라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는 상위유지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위유지형과 비교하여 상승형에 포함될 확률은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82배 낮으며, 부부갈등이 있을 때, 1.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할수록 경력단절 기혼여성들이 양육스트레스 상승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기준집단: 하위유지형)

1차년도(2008) 예측요인	하위유지형 대 상위유지형			하위유지형 대 상승형		
	<i>B</i>	<i>S.E.</i>	<i>exp(B)</i>	<i>B</i>	<i>S.E.</i>	<i>exp(B)</i>
연령	-.05	.09	.95	-.20**	.08	.82
가구소득	2.58	1.77	13.14	1.21	1.30	3.36
(기준: 대졸이상)	고졸 이하	.20	1.22	-.46	.61	.63
	전문대졸업	.09	1.10	-.82	.67	.44
배우자 양육분담	-.05	.11	.95	-.10	.09	.90
부부갈등	.25***	.07	1.28	.13**	.06	1.14
아동기질	.24+	.12	1.27	-.01	.09	.99
양육행동	-.32**	.13	.73	-.04	.11	.96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	-.16	.44	.86	.15	.35	1.16
어린이집 충분성	.18	.38	1.19	.15	.28	1.16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 4.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의 결과 산물

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결과 산물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활용하였다. 중간유지형, 혼합형을 제외한 유형들을 가지고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기효능감, 우울을 살펴보았다(표 10).

한편,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 간 차이는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기효능감, 우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검정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하위유지형이 가장 높고, 완화형, 상승형, 상위유지형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낮고 큰 변화를 겪지 않는 경력단절 기혼여성은 본인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가능하며 이것은 곧 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가치의식으로 이어져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지속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는 상위유지형이 부정적 자기효능감과 우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경력단절 기혼여성은 소득활동 중단이라는 경제활동사건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중첩되어 자신은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 '무엇'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 약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만성적으로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갖는 상위유지형이 가장 고위험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위험 집단의 양육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미시적지원(부부관

계, 가족관계)이 보다 시급히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표 10〉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의 모(母) 결과 산물 차이

결과 산물	평균(표준편차)		F	Duncan 사후분석
	전체	유형		
자아존중감	30.59 (4.21)	상위유지형 26.20(6.38)	5.39**	하위>완화>상승>상위
		하위유지형 33.25(3.25)		
		완화형 31.77(3.17)		
		상승형 29.56(3.88)		
부정적 자기효능감	9.11 (2.83)	상위유지형 13.00(3.32)	4.90**	상위>상승>하위>완화
		하위유지형 8.42(2.97)		
		완화형 8.12(2.55)		
		상승형 9.31(2.35)		
우울	11.75 (4.18)	상위유지형 16.20(4.71)	4.19**	상위>상승>완화>하위
		하위유지형 10.00(4.16)		
		완화형 10.29(3.62)		
		상승형 12.55(3.80)		

\* $p < .05$ , \*\* $p < .01$ , \*\*\* $p < .001$  NA=not applicable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경력단절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로 비교하여 해당 변인들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 결과와 이에 관하여 논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은 상위유지형, 중위유지형, 하위유지형, 완화형, 상승형, 혼합형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이 상승형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권미경(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 경우 자녀 양육과 자신의 직업경력, 그리고 노동시장으로



의 복귀 사이에 더 많은 갈등을 겪을 수 있다. 한 사람의 꿈이 경력으로 모색되고 굳건해지는 데는 시간의 법칙이 통용된다. 직장생활의 연차가 쌓이면서 자신의 직업 경력의 윤곽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면서 경력세계를 구축해 간다. 그리고 타인의 인정은 강화작용이 되기도 하고 보상이 되기도 한다. 한번 구축된 경력은 잠시 육아 휴직이나 직장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허약하게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때 복원이 용이하고 가능하다. 어머니의 나이가 어려 육아를 담당한다는 것은 모성 이전에 어머니의 인생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비전과 경력이 아직 불투명한데 새로운 역할 수행으로 자칫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불안감이 더욱 크며 장기적으로 자신의 인생설계를 관조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어머니 개인으로서 삶과 어머니로서의 삶의 상충이 어머니의 나이가 어릴수록 크게 부딪히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육아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투영되고 있다.

둘째, 어머니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이 완화형보다 상위유지형이나 상승형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의 기혼여성에 비하여 출산 후 재취업의 장벽을 높게 체감함으로써 고학력 여성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데다가, 고학력, 고스펙을 기대하는 사회와 기업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력단절 기혼여성들은 재취업의 높은 장벽과 양육스트레스 해소 방안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대학교 졸업 이상의 기혼여성에 비해 양육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양육스트레스 상위유지형과 상승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부갈등이 심화될수록 하위유지형과 완화형에 비해 상위유지형과 상위형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의미한 변인이라는 선행연구(민하영·이영미, 2009; 옥경희·천희영, 2012)와 일치한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휴직제도를 더 보편화 할 필요가 있으며, 바람직한 부부관계 및 부모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현실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양육행동의 경우 완화형보다 상승형에, 하위유지형보다 상위유지형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에 어머니가 온정적·반응적으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겪는 어려움이 양육스트레스를 상승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신의 시간 보다는 아이와 놀아주면서 자신의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편의 보다는 자녀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

게 된다. 자녀를 보다 온정적·반응적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양가감정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녀에 대한 애정과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를 함께 느끼게 되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다섯째, 아동기질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 유형은 하위유지형에 비해 상위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부정적인 기질을 많이 표현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상승된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이수미·민하영, 2007)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아동의 기질과 관련하여 자녀가 과활동아인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Mash & Johnson, 1983), 정서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을 보일 경우 어머니와 아동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미친다는 결과(Dumas & Lafreniere, 1993)와도 연관이 있다.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애정이 크더라도 자녀와 온종일 함께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아동의 선천적인 기질을 이해하고 능숙하게 다루기는 어렵다. 영아 자녀의 기질은 어머니가 변화시킬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태도와 인식 변화,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1~3차년도의 단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시간 변화에 따른 변수의 변화를 다방면으로 측정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한국아동패널을 이용한 분석대상이 272명으로 나타나 전체 경력단절여성을 대표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경력단절 기혼여성 뿐만 아니라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다중집단으로 비교하는 연구와,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위의 결론에 근거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낮은 경력단절여성 어머니의 경우, 자녀 양육과 자신의 직업경력 및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느끼고 이로 인해 양육스트레스를 체감하게 된다. 자신의 비전과 경력에 불안감을 느끼는 시기에 자녀 양육이라는 일생의 사건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아휴직이나 직장을 그만둘 경우라도, 이전에 구축한 경력을 인정하는 시스템 및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고등학교 이하 학력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차별 없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출산과 육아로 인한 직장 내 차별 해소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이 언급되어 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력단절 기혼 여성들에게 재취업의 어려움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직업교육과 재취업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배우자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부모교육과 별도로 부부관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되어 영유아기 부모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현실성 있는 방향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연령이나 학력, 경력단절 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경력단절여성들에게도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지역 내 보육시간 조정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보육기관이 확충되어야 한다. 더불어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보편화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경력단절여성의 양육행동과 아동기질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본인의 행동과, 자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018년부터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현금지원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 지원이 보다 현실성 있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부모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교육내용의 보완과 더불어 경력단절여성 어머니들의 실질적인 양육 상담 및 지원이 보다 다양한 경로로 공유 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회성 부모교육이 많은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13주 프로그램으로 3개월 이상의 부모교육을 제공한다. 자녀에 대한 올바른 훈육, 양육방법은 단발성으로 체득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부모교육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양육스트레스 경감과 자녀행복추구권 양자의 측면에서 부모교육이 예방적인 최선의 방안으로 언급되면서 부모교육 의무화도 제시되고 있다. 부모교육 이수와 연계해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의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있다. 즉, 중장기적인 양질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보급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다방면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재취업 지원정책, 재취업 결정 요인, 임금손실 등 노동시장 재진입,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안, 혹은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손정민, 2017)와는 달리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궤적의 요인을 유형별로 분석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양육스트레스 완화 대책을 통해 경력단절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민지(2014).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권미경(2011).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9-41.
- 곽금주·김수경(2004). 어머니의 내적 변인에 따른 영아와의 신체접촉 유형간 비교: 우울, 태도,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7(1), 1-18.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난주·김영숙·강민정·박건표·박미연(2016).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말경·박혜원(2008). 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와 K-BSID-2 수행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9(1), 243-255.
- 김세리·조혜림·이강이(2017). 위계선형모형(HLM)을 통한 영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추정. 열린부모교육연구, 9(4), 57-74.
-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 민하영·이영미(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자녀 양육스트레스 및 애정-거부적 양육행동간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203-213.
- 박새롬·노보람·박혜준·이순형(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과 영유아의 기질 및 내재화 문제의 구조관계: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육아정책연구, 9(1), 119-148.
- 박성연·도현심·정승원(1996). 부모-자녀관계: 생태학적 접근. 학지사.
-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주현·김진경(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영유아보육학, 73, 101-121.
- 성기정·권수영(2016). 경력단절 육아전업주부의 정체성 위기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

- 회지, 27(1), 163-195.
- 손정민(2017). 융복합시대 에코부모세대의 직업 스트레스 궤적과 예측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15(2), 405-409.
- 옥경희·천희영(2012). 가구소득에 따른 부부관계와 자녀가치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33(1), 205-221.
- 오재연·유구중(2007).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73-94.
- 유상미(2014). 영유아 자녀를 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유호용(2001).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및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수미·민하영(2007). 유아의 기질 및 아버지 양육 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9-225.
- 이윤주·진미정(2013). 영유아기 기혼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사회자본과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51(2), 229-239.
- 이정민·이보람(2013).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양상, 보육료 수혜여부, 육아지원기관 및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가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8주년 기념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367-387.
- 이진경·옥선화(2009). 첫 자녀 출산 여부와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유배우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에 관한 연구. 조사연구, 10(3), 59-83.
- 이희정(2013).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 8주년 기념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51-271.
- 이희정(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종단적 변화와 예측 변인.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3(2), 87-115.
- 정문자·이미리(2000). 취업주부의 직업 및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 115-126.
- 정현숙(2004). “결혼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 최정신(2009). 육아가치관, 부부관계만족도가 36개월 미만의 첫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3-24.
- 최효식·연은모·권수진·홍윤정(201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간 종단적 관계분석. 육아정책연구, 7(2), 21-45.
- 통계청·여성가족부(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대전: 통계청.
- 한국아동패널(2008). 한국아동패널 2008(1차년도) 도구프로파일.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아동패널(2014). 한국아동패널 EAS 기질척도\_부모용.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한세연·박성연(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7(1), 245-258.
-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Buss, A. H. & Plomin, R.(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oplan, R. J., Bowker, A. & Cooper.(2003). Parenting daily hassles, child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 376-395.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eater-Deckard, K., Pinkerton, R. & Scarr, S.(1996). Child care quality and children's behavioral adjustment: A four-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7, 937-948.
- Dumas, J. E. & Lafreniere, P. J.(1993). Mother-child relationships as source of support or stress: A comparison of competent, average, aggressive, and anxious dyads. *Child Development*, 64, 1732-1754.
- Hauser-Cram P, Warfield ME, Shonkoff JP & Krauss MW.(2001). Children with disabilities: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 development and parent well-being.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6, 1-131.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et al.(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Lazarus, R. S. & Folkman, S.(1987).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ash, E. J. & Johnson, C.(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older hyperactive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86-99.
- Mathiesen, K. S. & Tambs, K.(1999). The EAS Temperament Questionnaire—Factor structure, age trends, reliability, and stability in a Norwegian sampl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3), 431-439.
- McRae, S.(2003). Constraints and choices in mothers' employment careers: A consideration of Hakim's preference theor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4, 317-338.
- Mulsow, M., Caldera, Y. M., Pursley, M., Reifman, A., Huston, A. C.(2002).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 .
- Ostberg, M. & Hagekull, B.(2000). A structural modeling of parenting stres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 615-625.
- Pearlin, L. I., Lieberman, M. A., Menaghan, E. G. & Mullan, J. T.(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 Rosenberg, M.(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Revised edition,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 Williford, A. P., Calkins, S. D. & Keane, S. P.(2007). Predicting changes in parenting stress across early childhood: Child and maternal fact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251-263.

- 논문접수: 8월 1일 / 수정본 접수 9월 2일 / 게재 승인 9월 11일
- 교신저자: 임은의, 극동대학교 부교수, socialb@hanmail.net

## Abstract

### A Study on the Parenting Stress Trajectories and Causal Structure of Career-Interrupted Married Women

Hyekyung Yeom, Jaesin Kim and Euneui Yim

This study longitudinally examined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parenting stress of career-interrupted women with young children, and also explored the factors and outcomes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by using the 1st-3rd grade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Panel. We identified six types of the parenting stress trajectories such as constant-high, constant-moderate, constant-low, downward, upward, and mixed group. The differential factors of parenting stress trajectories in constant-high, upward and downward groups of career-interrupted women, were the mother's age, education level, marital trouble and parenting behavior. And the differential factors of parenting stress trajectories in constant-high, upward and constant-low groups were the mother's age, marital conflict,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 These groups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steem, negative self-efficacy, and depression.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e methods of positive emotions and successful labor market reentry of career-interrupted women.

Keyword: career-interrupted woman, parenting stress, developmental trajectories, marital conflict